

# 요양병원·군청·소방서 간 유착 여부 집중 수사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속속 밝혀지는 사실들**

**“뒤편 환자, 가위로 끈 잘랐다” 경찰 진술 확보**

**결박 부인했던 담양소방서장 소환 조사하기로**

**민간업체 안전 점검 ‘이상없음’ 판정...부실점검도 조사**

29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경찰이 담양소방서와 병원, 병원과 보건소·군청 간 유착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병원측이 사고 당일 119와 ‘합동소방훈련’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화재 발생 시 비상 대처 매뉴얼’까지 만들었지만 사고 당일에는 전혀 활용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울러 해당 병원이 또 참사 1주일 전인 지난 21일 민간 업체의 안전 점검을 받았지만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점에 주목, 부실한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조사

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히 “방화 참사 당시 침상에 끈으로 묶여있는 환자를 가위를 이용해 풀었다”는 경찰 진술을 확보, 당시 “결박 환자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담양소방서장을 ‘수사 대상’으로 소환, 해당 발언 배경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침상에 묶인 환자, 가위로 끈 잘랐다”=장성경찰청 방화 참사 당시 요양병원 별관 2층 환자 일부가 결박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조 현장에서 투입된 파출소 직원에게 “사고 당일 환자의 팔목과 침

상에 묶인 끈을 가위로 잘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결박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시 “결박된 환자는 분명히 없었다”면서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한 이 민호 담양 소방서장을 수사 대상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구조 현장에서 출동한 소방 대원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은폐시킨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순재 장성경찰청 수사과장은 2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재 당시 별관에 있던 일부 환자가 결박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왜 담양소방서장이 직접 나서, 사실을 감추려 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호 담양소방서장은 이와 관련, “당시 결박이 없었다고 단정해 발표한 것은, 내 부하(소방관)들이 결박을 풀고 환자를 구출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침상을 뜰때로 계단 앞까지 날랐기 때문에 경찰이 결박을 풀고 구조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상 매뉴얼 ‘무용지물’=2일 장성경찰 등에 따르면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은 방화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삼계 119 안전센터와 함께 ‘합동소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병원 측은 이에 맞춰 2~3일 전 주·야간 상황에 맞게 작성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숙지시키는 한편 삼계 안전센터에 보내 보안 사항 등을 문의했다는 것이다. 해당 매뉴얼의 경우 화재 발생시 신고부터 화재 진압 요령, 인명대피 방법뿐 아니라 소화기·대체반·통제반 등으로 나누고 직원별 구체적 행동 요령까지 담겼지만 정작 방화 참사가 발생할 때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병원 및 소방서가 미흡한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부실한 안전 점검도 수사=경찰은 화재 발생 1주일 전 민간 업체가 해당 요양병원 안전 점검에 나서 ‘이상 없음’ 판정을 내린 데 주목, 부실 검사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21일 직원 2명을 투입, 자동화재 탐지설비와 피난 설비 등 50가지가 넘는 항목에 대해 점검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해당 업체가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중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비롯, 소방·대피 시설에 대한 형식적 점검 여부를 확인중이다.

해당 소방점검 업체 대표는 광주일보와 만나 “지난 21일 직원 1명과 직접 2시간에 걸쳐 소방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당시에는 불이 난 별관 2층에 소화기가 모두 비치돼 있었고 점검결과 대체로 양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만약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입원중인 별관 2층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파악했지만 법규 위반이 아니므로 병원 측에 말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박기용수습기자 bhj@

**교수보다 일 많은 시간강사 강의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범법, 유족 손 들어줘**

범법이 강의 도중 숨진 대학 시간강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족은 고인이 정식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스트레스 속에서 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강의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환 부장판사)는 감사 이모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한 사립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7시간 후 뇌출혈로 숨졌다. 사망 당시 42세였던 13년차 시간강사 이씨는 대학 세 곳을 오가며 수업을 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의 2011년 1학기 주당 강의 시간은 28시간으로 전임 교수의 12시간에 비해 2.3배였다”며 “사망 무렵에는 중과급 출제·채점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강의 도중 사망한 점,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뇌출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사망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 참 답답한 검찰

**정보력 한계 드러내며 유병언 행방 못찾고 뒷북 수사만**

**금수원 관계자 차량 등 3대 수배**

검찰이 세월호 실소유주로 파악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와 관련, 수사·정보력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조속한 검거’를 강조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행방을 찾지 못하고 ‘뒷북’만 치는 검거 작전으로 답답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 당국의 어설픈 정보력으로 이뤄지는 마구잡이식 가택 수색에 따라 구원파와 상관없는 지역민들의 인권·개인 사생활 침해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2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 검사)은 유 전 회장 도주에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 관계자 소유의 회색 그랜저스타렉스(x×x×9158) 차량을 전국에 긴급 수배했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유씨 도주에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전국 경찰에 차량 판독용CCTV를 통한 차량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차량 발견 시 차량 트렁크까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각 경찰청에 요구했다.

검찰은 앞서 유씨 부자 등의 도주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군포 소유 검은색 벤츨리 차량, 미색 소나타 차량에 대

한 수배 조치도 내린 상태다. 최근 전주에서 발견된 소나타 차량에 대한 수배는 해제됐다.

검찰은 또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청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검거팀에 합류시켰다. 경찰도 2200명의 인력을 투입, 종교시설 237곳, 공·폐가 852곳 등 은신 가능성이 있는 3886개소에 대한 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 등은 유씨가 여전히 순천 인근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적 중이다. 유씨가 지난 25일 새벽 1시께 순천시 서면 송지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타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2시간 25분 만에 순천~전주간 17호 국도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송지재 휴게소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불과한데도, 2시간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운전기사가 도중에 있는 청소골에 유씨를 내려주고 갔을 것으로 수사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씨 부자 검거 지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유씨 부자를 최단일 내에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중기자 ejkim@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방청권 추첨...3 대 1 경쟁률 속 20명 선정**

2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소회의실에서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 참관을 위한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다. 이날 추첨으로 방청권을 얻은 일반인 20명은 오는 10일 열리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 추첨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67명(7명은 신청 취소 또는 주민번호 미기재로 제외) 중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경쟁률은 3대 1을 기록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은방 절도 공익요원 철창행**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수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공익근무요원이 철창행.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는 지난 4월 23일 새벽 4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양모(45)씨의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금반지·목걸이 등 귀금속 270점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지난해 12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 무단이탈한 김씨는 훔친 귀금속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겨 생활자금을 마련하고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 다니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는데, 경찰은 광주에 장물로 의심되는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통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씨를 검거.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커피숍" 매매

- 봉선동 한일병원 근처
- 1층 20평(실평), 최신 인테리어
- 보 2천만원에 월 90만원
- 비/권리금 4500만원
- 월 매출 1200만원 정도
- 문의 - 010,3605,5000

### 오피스빌 "매매"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빌
- 13층, 53평(실33평), 창가 코너
- 전체 울수리, 양동~하천쪽
- 사무실 적합(주거 가능)
- 시세/분양가 - 2억원 정도
- 급매 - 1억 5500만원
- 문의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 에 관한 모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비법 배우실 분!</li> <li>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li> <li>NPL과 특수물건만 취급</li> <li>주1회 3개월 완성</li> <li>배우면서 투자 가능</li> <li>단, 상담후 분사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투자 하실 분!</li> <li>소유권 이전으로 보장</li> <li>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같이 쓰실 분!</li> <li>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li> <li>연 사용료 12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li> <li>근저당으로 보장</li> <li>월 10% 이상 이자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수 신청 대리!</li> <li>원하는 물건을</li> <li>최소 비용으로 처리</li> </ul>	

**남 / 직원 모집**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남 : 초봉 200만원부터**  
**여 : 초봉 150만원부터**

**사무, 입장 활동 및 기타**